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A Study on Design Guidelines for the Place Identity of Public Space

Author 전미화 Chun, Mi-Hwa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박사수로
이 찬 Lee, Chan / 정희원,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Identity of the place where the physical location and time and spatial context, and is structured as socially agreed symbols to build a consistent image, while fraught with Differenti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and the practical and effective deployment of an integrated image to be useful as a guide for the top design 'Design Guidelines' are. The findings, where the identity used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design for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of public space design guidelines agreed upon by the public and social identity as the basis to establish a new identity as a contemporary and practical plan for this is to provide guidance. Second, the design guidelines in principle, the physical elements and activities of the parent and the temporal and spatial context and meaning were overridden. Third, the horizontal axis with respect to the identity and principles to guide development in the detail, and the vertical axis as a place to build an image in order for the specific design items are listed. Fourth, the guidelines can set a specific motif, and coverage including identity of the place. Fifth, by applying image and schematic the identity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and clearly.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designer's creativity and implement new image of the place, Design guidelines should study how a reasonable instructions.

Keywords 장소정체성, 장소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아이덴티티, 공공성
Place Identity, Placeness, Public Design, Guideline, Identity, Publicne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도시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제한된 공공공간이나 공공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계획이나 사적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을 높이고 장소적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브랜드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장소전략으로 주목되고 있는 도시의 공공공간은 도시민의 휴게, 여가, 문화가 혼재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분명한 장소 정체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시안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상업적 이해와 맞물려 해당 지역의 차별성만을 부각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

거나, 일관된 디자인 지침 없이 발주시점이나 행정적 편의에 따라 시행하여 원칙 없는 시설물의 나열에 그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공공성에 저해되고 시각적 공해만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장소 정체성은 장소의 물리적 입지조건과 시·공간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합의된 상징성을 내포하면서도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차별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차별과 통합된 이미지를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상위 디자인 지침으로서 유용한 것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디자인 결과물이 상위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차별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적용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상위지침이나 금지사항을 나열하는 수준의 다소 소극적인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디자인 실시단계에서 도시의 장소이미지를 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성하고자 하는 본래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편의증진이라는 공공성을 포괄하면서도 대상의 특수한 장소성에 기반하여 차별적이고 통합적인 장소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과 위계를 연구하고 구성요소의 방향을 제시,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소이미지를 형성하는 디자인 계획요소의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진행체계는 크게 '장소 정체성과 장소이미지 고찰', '장소정체성을 형성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 항목과 위계 추출',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안 제시'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연구 방법 및 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장소이미지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디자인의 계획요소를 추출하고 디자인가이드라인 사례분석을 통해 장소정체성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항목과 위계, 내용을 연구한다. 셋째, 이상 분석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남산르네상스 디자인가이드라인'¹⁾의 예를 통해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소 정체성과 장소이미지

2.1. 장소 개념

포스트모던에 대한 담론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던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장소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소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시작점이 공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탐구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한다.

장소는 환경의 한 단위로서 위치(Location)이상의 의

미를 가지며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그 자체의 질서를 갖고 각개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사이에 동질성과도 관련되어 인간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와 외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 및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상징 등으로 구성된다. 즉, 장소란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미하며 지역성(Locality)과 연관되어 재료, 형상, 질감, 그리고 색상 등의 구체적인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특성(Character)'과 '분위기(Atmosphere)'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장소의 본질이다.²⁾ 장소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루커만(F. Lukermann)의 장소개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는 위치를 갖는다. 특히 다른 사물이나 장소들과 관계될 때 위치는 대지의 내적 특성과 다른 위치와의 외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둘째,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장소는 자신만의 질서, 즉 고유한 양상불을 이루며 다른 장소와 구분된다. 이것은 분명 모든 장소가 고유한 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장소가 고유하지만, 장소는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의 체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의 순환구조의 일부이다. 넷째, 장소는 국지적이다. 즉, 장소는 더 큰 지역의 부분이고 지역분화 체계의 초점이 된다. 다섯째, 장소는 끊임없이 생성된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고 사라지면서 독특한 역사적 구성요소를 지닌다. 여섯째, 장소는 의미를 가진다. 장소는 인간의 믿음에 따라 규정된다.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인간이 장소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 행위의 바탕에는 장소가 있으며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2.2. 장소 정체성과 장소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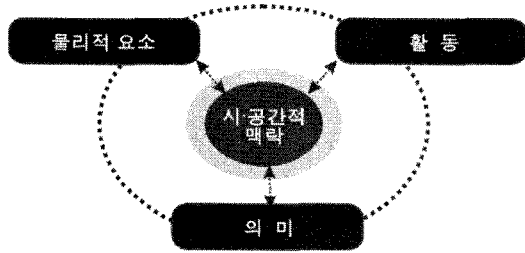
장소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소는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적 특성을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으며 결국 장소란 곧 장소의 정체성이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정체성이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무엇'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장소 정체성의 요소는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라는 세 가지인데³⁾ <그림 1>과 같이 이 요소들이 시공간의

1) '남산르네상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2009년 시행한 서울시 연구용역과제로서 저자가 속한 대학에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남산의 새로운 장소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 디자인 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저자는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차와 위계, 방향 설정 및 세부지침 등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의 전반을 수행하였다.

2) 장선영, 현대공간의 장소상실성과 표현에 관한 고찰, 국민대 석사논문, 2006,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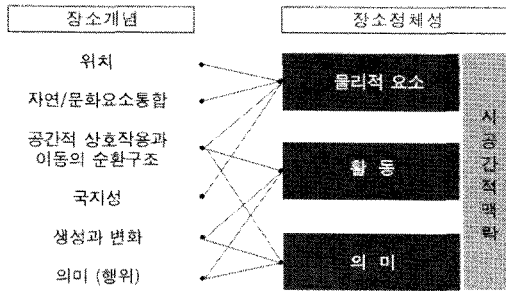
3)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정체성을 연구한 에드워드 렐프는 현상학자인 메를리 폰티가 인간행위를 물리적 요소, 활동적 요소, 심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전례를 그대로 장소 연구에 적용하여 물리적 환경, 인간활동, 의미가 장소정체성을 구성하는 질료로 정의하였다.

맥락과 결합되고 요소들 간의 변증법적 상호조합이 이루어져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장소의 특성, 즉 정체성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정체성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장소정체성의 구조

이 네 가지 요소들은 <그림 2>와 같이 장소개념과의 관련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장소와 장소정체성의 상호관계

물리적 요소는 장소개념에서 위치, 자연/문화요소의 통합,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의 순환구조, 국지성과 관련하여 장소의 위치, 자연조건,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물리적 환경, 이동을 위한 제반 여건, 주변장소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를 제한하는 물리적 경계 등 장소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제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요소는 가시성에 기반하여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며 장소에서 의도한 활동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거나 활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활동은 장소개념의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의 순환구조, 생성과 변화, 의미(행위)와 관련하여 장소를 이용하고 장소이미지를 구조화하는 주체가 장소에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즉, 물리적 요소의 실질적 기능이나 행사, 축제, 이벤트, 이용행태, 이동방법 등 장소를 배경으로 장소에 의해 일어나는 총체적 행위로서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공간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활동의 의도나 방법을 달리하여 새로운 의미를 재생산한다. 결과적으로 장소의 생성과 소멸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활동'이다.

의미는 장소개념의 의미(행위), 생성과 변화, 공간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지만 기본적으로 복합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지닌다. 물리적 환경이나 활동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의미라는 요소는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데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속성으로 한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도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설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복잡한 변증법적 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이 의미는 다시 물리적 요소와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이미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다.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이미지가 곧 그 장소의 정체성이며 장소경험의 강도와 깊이의 구조인 수직축과 경험의 주체인 집단 상호간에 들어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의 사회적 분포인 수평축이 교차되어 구조화된다고 하였다.⁴⁾ 심리학자 올포트(Gordon w. Allport)는 이미지의 대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사건, 사물, 자연등도 포함시키면서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장소, 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형성될 경우 그것이 바로 장소이미지라고 설명하였다. 즉, 장소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신념과 의도, 지식 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를 경험하는 강도에 따라 구조화된 장소에 대한 평가이자 심리적 그림이다. 장소이미지는 크게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지역에 대하여 갖는 일련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과 장소의 개별적 부분들이 갖는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2.3. 합의된 장소정체성

장소이미지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주체의 지식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가 생성되고 상이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주체별로 내부적인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상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주체들이 상호관계성을 맺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에 속해 있다면 그 장소의 정체성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된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비판 사회학자인 C.W. 밀즈는 이 합의된 정체성을 공적 정체성(public identity)과 대중적 정체성(mass identity)으로 구분하였는데 '대중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경험으로부터 발전해 왔다가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대중매체, 특히 광고를 통해 살포되는 것으로 가장 피상적인 장소정체성이며 경박하고 조작적인 상투성에 기초하여 장소에 대한 정체성의 토대를 파괴한다. 그러나 '공적 정체성'은 이와 반대로 특정 사회의 다양한 지식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다른 증명 가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판, 논형, 서울, 2005, p.25

4)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p.129

능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된 것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합의(合義)'인데 이는 집단과 개인의 자유로운 이견과 경험으로부터 발전해온 것이다. 비록 장소에 대한 사실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리(地理)가 이미 합의된 정체성의 토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공공적인 장소 정체성은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해(利害)의 통합으로서 공동체 내의 특수한 지배적 사회관계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공적인 장소정체성의 역할은 장소에 대한 집단의 이미지를 묶어주게 한다.

<표 1> 합의된 장소정체성의 종류와 속성

구분	합의 방식	속성
공적 정체성 (public identity)	집단과 개인의 자유로운 이견과 경험으로부터의 자발적 합의	다소 피상적인 수준 공공 이해(利害)의 통합 장소에 대한 집단이미지
대중적 정체성 (mass identity)	대중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강제 유도된 합의	가장 피상적인 장소정체성 조작적인 상투성에 기초 장소정체성의 토대 파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장소정체성'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징이나 의미, 가치인 '공적 정체성'을 통해 당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장소'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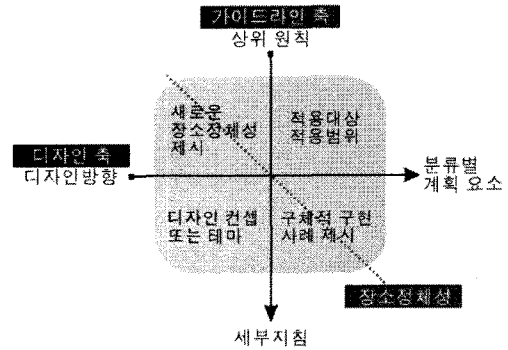
3. 가이드라인의 항목과 위계 추출

본 장에서는 공적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전장과 후속장의 매개가 되는 장으로 선행가이드라인 사례분석을 통해 장소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위계와 항목 등을 추출하고, 앞서 분석한 장소정체성 구성요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원칙 항목과 디자인 계획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항목별로 장소정체성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 작성 시 고려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3.1.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분석

공공공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와 해당 대상지의 장소적 특수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각각 보편성에 기반한 사례와 특수한 상위 사업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대상지가 선정된 사례를 각각 2개씩 선정하였다. 국내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상업공간분야에서 '가든화이브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해외사례로는 뉴욕의 'High Performance Infrastructure Guideline'과 일본의 '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각 사례별로 목적과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구성과 위계를 조사하고 장소성과 관계된 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분석결과, 수직적 위계의 대분류는 '목표-대상범위와 적용 규정-적용 원칙-대상별 세부지침'의 순으로, 가이드라인의 상위원칙에서 구체적 세부지침으로의 위계를 가지며, 수평적으로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디자인개념-컨셉-테마-재질, 색채, 배치'의 순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디자인 실행주체의 디자인 단계를 고려한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3>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의 위계와 구성

장소성과 관련해서는 <그림 3>과 같이 디자인을 통해 구현하고자하는 대상지의 새로운 장소정체성을 디자인 컨셉이나 테마로 제시, 공간의 개념 축 설정, 사진이나 다이어그램으로 계획방향을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보였다. 따라서 장소정체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소정체성을 위한 상위지침, 장소이미지 구현을 위한 컨셉(아이덴티티), 이를 실시단계에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계획항목 등이 필요하다.

3.2.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디자인 계획 요소

(1) 물리적 요소

장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가시성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장소에서 그 장소의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 우리의 눈은 관심있는 지점에 멈추게 되고⁵⁾ 그 지점(혹은 사물)들의 가시적 특성이 내적 경험과 일치했을 때 고유한 장소이미지를 갖게 된다. 물론, 인간이 장소를 지각하는 데는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사물의 가시성이 가장 많은 시각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서 비교적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물의 물리적 요소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가 지니는 기능적 삶의 분위기, 감정, 상징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이 가시적 외형에 담

5) 장소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안정적 대상이다. 우리가 파노라마 경관을 볼 때 우리의 눈은 관심 있는 지점에 멈추고 그렇게 잠시 멈추는 시간은 순간적으로 크게 보이는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개정초판, 도서출판 대운, 서울, 2007, p.261

<표 2>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례별 구성 위계 및 검토내용

분류	가이드라인명	개요	기본방향	구성 위계	분석 내용
상위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 보편적 공공성 지향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2008)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 고려사항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간: 보행자중심, 안전성, 질서, 지속가능, 통합화 공공건축물: 경관성, 사용자 중심, 쾌적한 서비스, 친환경, 고효율 공공시설물: 기능성, 통합성, 안전성, 보편성, 환경성, 일관성, 정체성 공공시각매체: 기능성, 가독성, 통합성, 안전성, 보편성, 국제성, 환경성,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정의, 기본방향, 10대 원칙 세부가이드라인: 목적, 적용대상, 방향, 인식공간, 도시공질, 공공건축물, 의무공간, 옥외주차장, 구조물 주변공간, 기타 공공공간 보행자로: 적용대상, 안전성, 보편성, 친환경, 통합화 지정도로: 목적, 적용대상, 방향, 인식공간, 도시공질, 공공건축물, 의무공간, 옥외주차장, 구조물 주변공간, 기타 공공공간 자동차도로: 적용대상, 안전성, 보편성, 친환경, 통합화 기타: 지형, 시설물배치, 재질, 식재, 배선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위계: 문제제점과 방향을 우선 제시하고 대상별 지침, 공공공간 대상 분류, 예시사진과 함께 나열, 세부지침의 적용수준을 '필수'와 '권장'으로 분류 장소성: '지형, 배치, 재질, 색채, 패턴 및 색채, 저층부, 입면 등 디자인 실시단계 및 과정별 지침 마련', 'Soft Seoul'이라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디자인 원칙 제시
	High Performance Infrastructure Guideline (New York, 2005)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의 계획, 범위 설정, 설계, 건축, 유지에 대한 유용성과 목표 및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촉진·보건 -안전성 -삶의 질의 개선·순환 -성능의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효율화, 실행 전략, 가이드라인 개념정의: 장점, 트렌드, 지역요소와 기회요소 사이드, 평가, 가용(거리), 포장, 시설물, 우수대피시설, 경관, 건축물 생애주기 극대화, 포장 최소화, 우수포장사용, 재활용제빙 목표: 장점, 적용개념, 통합원칙, 기술적 지침, 디자인, 관리, 사례, 관련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위계: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의 정의와 이익 등을 제일 먼저 제시하여 당위성을 공유', '잘된 사례를 Site에 도식화', 'Street-Landscape-Water-Utility-Constructure별로 상세한 다이어그램과 사진으로 설명' 장소성: '혁신과 개발중심의 뉴욕을 생태도시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장소정체성 제시', '뉴욕의 랜드마크인 센트럴 파크가 갖는 생태성 강조'
상위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 특정 장소성 지향	가든하이브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SH공사, 2008)	각각의 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체를 일관성 있고 정돈된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반에 관한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전체 조성의 기준마스터플랜 수립 -단지 전체를 통합하는 명칭과 브랜드 명칭 개발 -C.I. 베이직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 마케팅 분야와 연계추진 -도시건축, 조경, 경관조형, 광고물 가이드라인 -단지에 통합 활용 가능한 가로환경시설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디자인 배경, 비주얼 아이덴티티, 조경, 도시건축, 옥외광고물, 경관조형 베이직시스템, 기초조사, 기본개념, 보행자·가로환경, 불거리와 불거려져 있는 저층부, 지층계, 문화콘텐츠 공급, 개설있는 가로환경 가로환경 시설물: 기본개념, 공공시설물, 외부인대치인 기본방향: 친숙한 시설, 투명입면재료, 지상주차최소화, 기본방향, 건축외장재, 색채, 미술장식품, 미디어월 기본원칙: 기본원칙, 적용문의 개념정의: 커먼스페이스와 관계, 전면 외장 지침, 행위지침 1, 행위지침 2 개념정의: 커먼스페이스와 관계, 전면 외장 지침, 행위지침 1, 행위지침 2 개념정의: 분절된 파사드, 옥상 및 벽면녹화, 행위지침 1, 행위지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위계: '디자인테마와 원칙, 적용유 의사항을 우선 제시', '소분류별 설계, 설치, 재료, 색채순으로 제시' 장소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간화, 시각화하는 가이드라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곧 장소이미지로 연결되도록 사인시스템에 집중'
	미나토미라이 21 중앙지구 도시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요코하마, 2005)	'미래의 항구'라는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의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으로대상이가운데 중요 도시공원과 항만시설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형성과 차별적 랜드마크 조성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력있는 거리 (Activity Floor) -회유성이 있는 저층부 -3개의 도시축 연계성 -매력을 느끼는 장소창출 -보행자 중심의 보도형광 지 및 커먼스페이스 -요코야마의 대표적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정립과 구조, 대상구역, 전역에 대한 방침,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참고 자료, 경관조형 액티비티 플로어, 보도형광, 커먼스페이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부속설비, 색채, 야간조형, 건축디자인, 스카이라인, 순회가로, 옥외광고물 개념정의: 커먼스페이스와 관계, 전면 외장 지침, 행위지침 1, 행위지침 2 개념정의: 커먼스페이스와 관계, 전면 외장 지침, 행위지침 1, 행위지침 2 개념정의: 분절된 파사드, 옥상 및 벽면녹화, 행위지침 1, 행위지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위계: '대상지의 범위와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규정 후 가이드라인 수립과정 제시', '개념별 정의와 계획방침을 도식과 사례사진으로 설명' 장소성: '대상지의 시공간적 맥락을 분석하여 개념축을 설정', '활력'이라는 도시이미지화 시설과 사용자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장소화 유도

기게 된다. 즉, 장소는 가시성을 지닌 물리적 요소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지각되고 이미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물리적 가시성과 관계하는 디자인 계획요소로는 조형을 결정하는 형태, 색채, 재질 등이며 시각적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조명, 서체, 식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활동

활동은 물리적 요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장소의 시공간적 맥락에 따른 사용자의 의도가 해소되도록 하는 총체적 행위이다. 디자인은 이러한 장소의 고유기능, 사용자의 요구, 시설의 이용형태 등을 예측하고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활동과 관계하는 디자인계획요소로는 시설 또는 장소의 용도, 프로그램, 조망, 동선, 배치, 형태, 안내체계 등이다. 이 요소들은 물리적 요소의 어포던스(지원성)를 증진시켜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한 상호교류를 유도한다.

(3) 의미

의미는 본질적으로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디자인 계획단계를 벗어나 밖에서 규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의미형성과정을 촉진시키거나 합의된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가이드라인의 상위 전제에서 간접적으로 장소의 의미를 전제하거나, 물리적 계획요소에 은유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의미와 관련된 계획요소는 전면에 부각되는 항목이 아닌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 항목에 잠재적으로 녹아들어서 결과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이 하나의 의미 있는 형상이 되도록 한다.

(4) 시공간적 맥락

시공간적 맥락은 디자인 계획단계에서 주로 사전리서치나 현황분석과 같은 초기단계에서 기존 장소성을 파악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은 추후 전개될 디자인의 방향, 컨셉, 조형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근거가 된다. 장소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 장소의 문화, 역사, 물리적 입지, 수요조사, 주변과의 연계성 등의 장소 특성과 전후 맥락을 조사하여 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컨셉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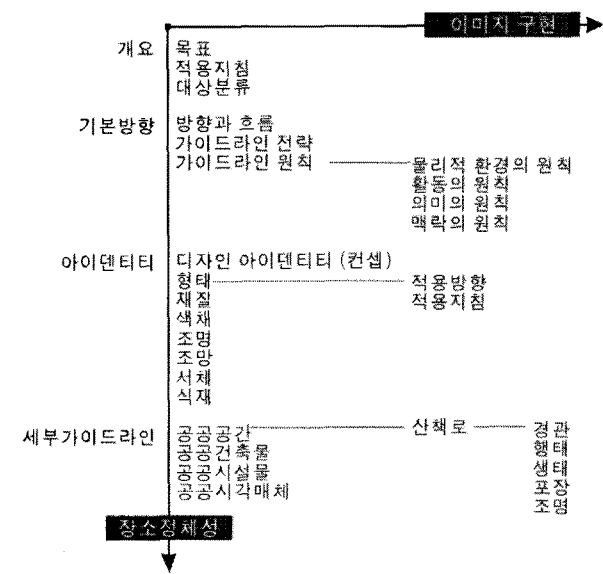
<표 3>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계획요소와 특성

장소정체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적용 특성
물리적 요소	형태, 색채, 재질, 조명, 서체, 식재 등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 -일정 범위로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모티브 제공
활동	프로그램, 조망, 동선, 배치, 형태, 안내체계 등	-예측된 사용자 행태가 이루어지도록 -물리적 요소의 어포던스를 높이는 지침
시공간적 맥락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컨셉	-사전에 맥락성을 조사하여 디자인 아이덴티티 컨셉으로 제시 -새로운 장소이미지 구현의 근거
의미	가이드라인 전제 은유적 상징부여	-전면에 항목으로 지정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항목에 은유적으로 잠재

3.3.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 및 위계

이상에서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디자인 계획항목과 사례 분석을 통해 추출한 장소성 관련 항목과 위계 구조를 바탕으로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과 위계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수직적 위계에 있어서 대분류는 '개요-기본방향-아이덴티티-세부 가이드라인' 순으로, 소분류는 '배치-외관-진입부-실내' 순으로 장소정체성을 구현하는 총체적 원칙에서 구체적 실천으로의 위계를 갖는다. 수평적 위계는 '아이덴티티-형태, 재질, 색채-적용방향과 지침', '세부 가이드라인-공공공간-산책로-경관' 순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자인계획 단계 순이다. 이 위계에 따라 항목을 정리하고 장소정체성 요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작성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그림 4>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위계

4.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안 제시

본 장에서는 앞서 추출한 가이드라인의 항목과 위계, 그리고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남산르네상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를 통해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남산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것으로 남산의 생태와 역사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남산 자락 문화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다. 작성 과정은 '장소성 분석-기본방향과 원칙 설정 - 적용대상분류 - 아이덴티티설정-세부 가이드라인 작성-예시 및 이미지 작성'의 순으로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 본문에서는 장소정체성 형성의 주요 항목인 '아이덴티티' 부분과 '세부 가이드라인의 기법'에 대한 예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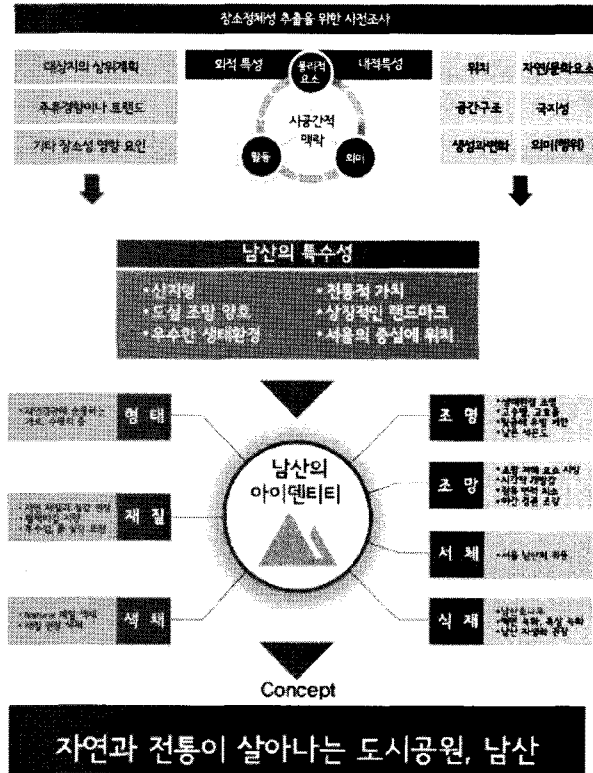
<표 4>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 및 고려사항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및 위계			고려 사항	장소정체성과 관련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리적 요소	활동	시공간 맥락	의미	
1 개요	1.1 목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기술	○	○	●	●	
	1.2 적용지침		적용시 유의사항과 용어정의, 사용방법, 상위법규 등 기술	○	○	●	○	
	1.3 대상분류	1.3.1 공공공간		공공공간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발주형식, 상위 마스터플랜의 기준에 맞춰 대상을 분류하고 장소정체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대상 명기 가능	●	●	●	●
		1.3.2 공공건축물						
1.3.3 공공시설물								
1.3.4 공공시각매체								
2 기본방향	2.1 방향과 흐름		상위사업이 있는 경우 상위사업의 의도를 간략히 설명하고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의 작성과정을 보여주어 활용주체가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전후맥락을 고려하여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	○	○	●	●	
	2.2 가이드라인 전략		장소정체성(장소이미지) 관점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침이 되어야 하는 배경과 타당성 설명. 장소정체성의 4가지 요소의 개념을 설명하고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시공간적 맥락간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어그램등을 통해 적용 전략 설정	●	●	●	●	
	2.3 가이드라인 원칙	2.3.1 물리적 환경의 원칙		물리적 요소간의 시각적, 공간적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한 원칙 수립	●	○	●	○
		2.3.2 활동의 원칙		장소성에 기초하여 시설과 사용자, 환경과 프로그램간에 준수할 원칙 수립	○	●	●	○
		2.3.3 의미의 원칙		과거와 현재, 도시와 자연, 첨단과 전통간의 조화등 장소의 의미 창출 방안 수립	○	○	●	●
2.3.4 (시공간적)맥락의 원칙		장소의 맥락에 기초하여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대원칙 수립	○	○	●	○		
3 아이덴티티	3.1 디자인 아이덴티티(컨셉)		사전조사를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현될 장소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ex)문장, 이미지, 도식	●	●	●	●	
	3.2 형태_Shape, Form	3.0.1 기본방향 (공통) 3.0.2 적용지침 (공통)	디자인 아이덴티티(컨셉)에 따른 형태모티브제시나 형태계획 시 준수할 지침	●	○	●	○	
	3.3 재질_Material, Texture		디자인 아이덴티티(컨셉)에 따른 핵심 재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질감을 제시	●	○	●	○	
	3.4 색채_Color		디자인 아이덴티티(컨셉)에 따른 색채 팔레트를 제시	●	○	●	○	
	3.5 조명_Lighting		디자인 아이덴티티(컨셉)에 따른 특수한 조명기구나 조명 방식, 제한사항을 제시	●	○	●	○	
	3.6 조망_View		대상지가 외부공간인 경우 해당장소와 외적요소와의 상호 관계성 증진을 위한 물리적 요소의 결정인자나 행태유발 요소로서 고려	●	○	●	○	
	3.7 서체_Type face		서체는 특정 장소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이고 함축적으로 내포하며 안내사인시스템 등에 적용	●	○	●	●	
	3.8 식재_Plant		대상지가 외부공간인 경우, 생태환경이 주를 이루는 장소인 경우에는 식재도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요소	●	○	●	○	
4 디자인 가이드라인	4.1 공공공간		4.1.1 산책로	4.1.1.1 경관	장소의 시지각적 가시성과 관련한 포괄적 지침 항목	●	●	●
		4.1.1.2 행태		해당 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이용행태와 여포던스 항목	○	●	●	●
		4.1.1.3 생태		공공디자인의 보편적 이슈로 생태환경보존 지침	○	●	●	●
		4.1.1.4 포장		공공공간 계획에서 물리적으로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것으로 재질과 패턴등에 대한 지침	●	●	●	○
		4.1.1.5 조명		야간의 장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색, 투광방식, 조명기 등에 대한 지침	○	●	●	●
	4.2 공공건축물	4.2.1 편의 시설	4.2.1.1 배치	장소와 건축물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지침	○	●	●	●
			4.2.1.2 외관	이용자 시각에서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의 수직요소	●	○	●	●
			4.2.1.3 진입부	옥내외의 상호 관계성과 접근성을 규정하는 지침	●	●	●	○
			4.2.1.4 실내	시설의 용도 및 이용행태와 관련한 지침	●	●	●	●
	4.3 공공시설물	4.3.1 벤치	4.3.1.1 외관	아이덴티티의 집약적 조형미/ 주변과의 시각적 연계	●	○	●	●
			4.3.1.2 행태	시설물의 인터페이스 및 이용방식에 대한 지침	●	●	○	●
			4.3.1.3 배치	장소와 시설물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지침	○	●	●	●
	4.4 공공시각매체	4.4.1 안내 지시	4.4.1.1 외관	아이덴티티의 집약적 조형미/ 주변과의 시각적 연계	●	○	●	●
			4.4.1.2 표기요소	아이덴티티 서체 및 색채 관련 지침	●	●	○	●
			4.4.1.3 안내체계	주변 맥락을 고려한 안내 위계와 체계 관련 지침	○	●	●	●
4.4.1.4 배치			장소와 시설물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지침	○	●	●	●	
4.4.1.5 조명			야간의 장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색, 투광방식, 조명기 등에 대한 지침	●	●	●	○	

○: 관련 없음 ●: 보통 ●: 많음

4.1. 아이덴티티

남산의 시공간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적요인과 장소외적요인으로 조사, 분석하여 남산만의 특수한 장소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포하는 장소이미지로서 '자연과 전통이 살아나는 도시공원, 남산'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가시화하 물리적 요소의 계획요소 - 형태, 재질, 색채, 조명, 조망, 서체, 식재-별로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설정하였다.



<그림 5> 아이덴티티 추출 예시

(1) 형태 _Shape, Form

남산의 자연경관에 순응하고, 남산의 다양한 문화적 레이어를 상징하는 조형적 지침을 설정하였다. '가로로 긴 수평적 레이어 층'을 기본 모티브로 하되 수평성을 강조하는 확장형 예시를 제안함으로써 안정감, 개방감, 방향성, 확장감, 단순한 이미지를 유도한다.

<표 5> 아이덴티티_형태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기본 방향	기본형	남산의 인공물의 기본 조형패턴은 수평적 레이어 중첩으로 한다.
	확장형	수평감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층의 간격이나 두께를 자유롭게 분절할 있다.
적용 지침		수평비례가 나오지 않는 경우 가로로 긴벽을 조성하여 수평성 강조한다.

적용 지침		경사면일 경우 매스분절을 통해 높이를 낮춘다.
		지형의 높낮이가 달라지더라도 수평감을 유지한다.
		바닥패턴은 사람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적용한다.

(2) 재질 _Material, Texture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주요 재질을 생태성, 역사성, 전통성, 지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질과 질감으로 규정하고 목재, 석재, 금속재, 포장재로 분류하여 각 분류별로 지침을 제시하였다.

<표 6> 아이덴티티_재질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기본 방향	생태성, 역사성, 전통성, 지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질과 질감으로 한다.	
적용 지침	목재	생태성->남산소나무->육송->목재본래질감부각
	석재	역사성->불수대, 석곽, 한옥 돌담->화강석통석->다듬어지지 않은 본래질감
	금속재	전통성->시간의 축적->부식질감->부식질감과 광택미감 지양

(3) 색채 _Color

아이덴티티로서의 일관성과 차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재질 권장색으로 분류하고, 수려한 자연 녹지 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Natural계열 색채 이미지를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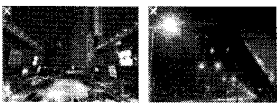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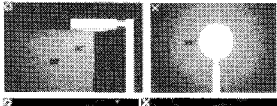

<표 7> 아이덴티티_색채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기본 방향	수려한 자연 녹지 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색채계획	
적용 지침	주조색	남산의 경관 색채를 축색한 결과 연중 늘 보이는 색채를 서울색 250색에서 추출하여 주조색으로 하였다. 주조색 : 서울 현상색 250색 중 SLC226 (100% R, 100% G, 100% B) 연년 배후 기층 컬러 보조하는 색채 선택(자연계열 색채) 적용하는 바탕색 (100% R, 100% G, 100% B)
	보조색	녹지경관 및 역사경관 경관팔레트를 기본으로 주조색과 어울림을 고려하여 5YR, 5Y 팔레트를 선정하였다.
	강조색	남산조망을 상징하는 '서울하늘색', 생태경관을 상징하는 '서울현상색', 남산소나무를 상징하는 '남산초록색'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녹색 서울 현상색 250색 중 SLC042 (50R90) L:37 R:60 G:47 천주 서울 현상색 250색 중 SLC012 (60R91) L:32 R:52 G:30 라임 서울 현상색 250색 중 SLC145 (60R94) L:30 R:51 G:30

(4) 조명 _Lighting

생태성보존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생태환경 보호, 빛공해 유발 제한, 고효율 광원, 낮은 색온도를 권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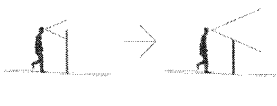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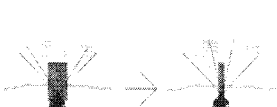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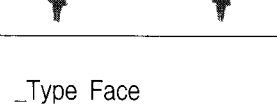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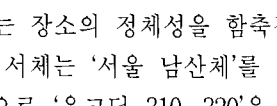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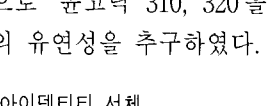
<표 8> 아이덴티티_조명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기본 방향	조명 계획의 기본 방향은 생태환경 보호, 빛공해 유발 제한, 고효율 광원, 낮은 색온도를 권장하였다.	
적용 지침		빛공해를 유발하는 색상은 제한한다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명을 최소화한다.
		생태환경에서 상향조명은 제한하고 하향조명을 권장한다.
	공간의 성격과 테마에 따라 차별적 적용하되 문화재 경관조명 설치 시에는 원형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5) 조망 _View

남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산으로서 서울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우수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산의 장소성 가운데 행태와 공간적 맥락 측면에서 중요한 특성이자 계획요소이다.

<표 9> 아이덴티티_조망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기본 방향	식재 및 인공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는 조망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적용 지침		조망점에 조망데크 설치
		내외부 시각적 개방감 고려
		조망을 저해하는 장애물지양
		시설물 높이 최소화
		시설 시각점유면적최소화
	야간 조망저해하지 않는 조명 계획	

(6) 서체 _Type Face

서체는 장소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내포한다. 남산과 관련한 서체는 '서울 남산체'를 기본으로 하되 본문체는 제한적으로 '윤고딕 310, 3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상의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표 10> 아이덴티티_서체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적용 지침	<p>1. 서울 남산체 B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해하 ABCDEFGHIJKLMNPO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한글:남산체B 1234567890_12345</p>	<p>임의 장평 조절 및 두께 조절 제한한다. 행간, 자간임의조절은 허용한다. 서체 회전은 지양한다. 안내표지 적용 시 진한 바탕에 밝은 서체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p>
	<p>1. 서울 남산체 M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해하 ABCDEFGHIJKLMNPO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한글:남산체M 1234567890_12345</p>	<p>1. 서울 남산체 L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해하 ABCDEFGHIJKLMNPO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한글:남산체L 1234567890_12345</p>

(7) 식재 _Plant

남산이 도심에 위치한 산이므로 녹지, 생태환경은 남산이 갖는 가치이자 장소정체성을 이루는 주요 인자이다. 남산과 같은 생태환경이 장소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요소인 경우에 식재는 아이덴티티 구성요소가 된다.

<표 11> 아이덴티티_식재

위계	가이드라인 방법	
	시각이미지	텍스트
기본 방향		남산소나무 등 토종 자생 식재를 적용하고 인공시설의 벽면과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한다.
적용 지침		녹화 시 계절식재와 상록식재를 혼용하여 계절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남산의 토종 자생화를 적용한다.

4.2. 가이드라인 기법의 예

(1) 필수와 권장 구분

남산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 항목 앞에 [필수] 표시를 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에 강도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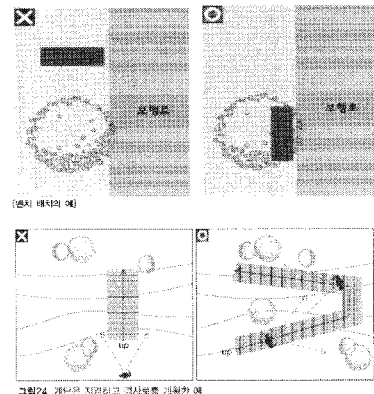
2) 표기 요소

- 가, 연내 지도에는 시설 명칭, 방향, 높이, 위치, N사출터위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표기한다.
- 나, 남산의 고저차 및 경사도에 대한 정보를 표기한다.
- 다, 제목은 남산체 EB 또는 B를 사용한다.
- 라, 문안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되, 볼드체는 지양한다.
- 마, 서로 주제가 다른 문단 사이의 줄 간격을 2열 간격을 두어 사용자의 수월한 정보 인식을 돕는다.
- 바, 강조색은 본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사, 권역별 안내지도를 적용할 경우는 반드시 Key-map을 우측 상부에 표기한다.

<그림 6> 필수와 권장 구분 예시

(2) O, X 식의 사례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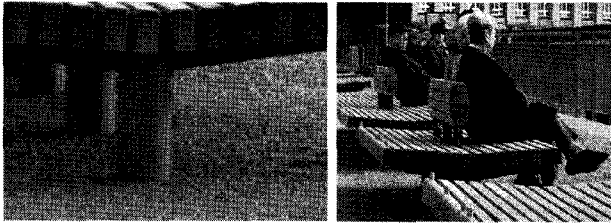
명확한 디자인 아이덴티티 구현을 위해 해당 대상에 있어서 사전에 예측되는 잘못된 사례와 올바른 사례를 비교하여 첨가한다.



<그림 7> O, X 식의 사례 첨가 예시

(3) 참고 사진 및 도식 첨가

문안으로만 작성될 경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안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참고 사진이나 도식(다이어그램)을 첨부한다.



자연과 닿는 최소한의 예

양방향에서 앉을 수 있도록 폭넓게 디자인한 예

<그림 8> 참고사진 제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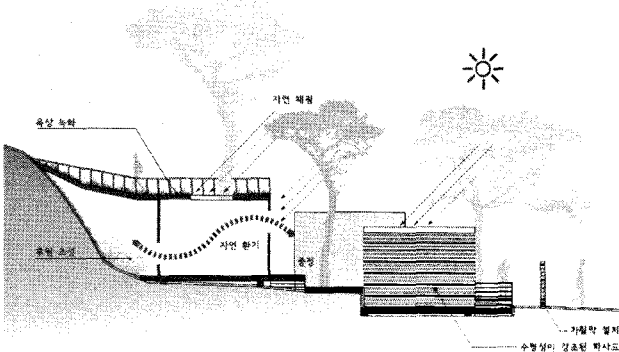


그림87 완충지대의 공간 구성의 예

<그림 9> 도식(다이어그램)의 예시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공공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징이나 의미, 가치인 ‘공적 정체성’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장소성’으로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계획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장소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장소정체성의 구성요소인 물리적 요소, 활동, 의미의 개념과 시공간적 맥락을 재정의하고 이를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상위 지침항목으로 적용한다.

셋째, 물리적 요소, 활동, 의미, 시공간적 맥락의 관점에서 디자인 계획요소를 추출하고 선행가이드라인 사례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위계와 항목을 추출한 결과, 수평적 위계는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총칙에서 실천 지침의 위계를 갖으며, 수직적 위계는 장소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 단계 순으로 전개된다.

넷째, 구체적 대상지(장소)가 전제된 경우에는 시각적, 공간적 정체성을 위하여 아이덴티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형 모티브와 적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다섯째, 장소정체성을 구축하는 아이덴티티의 효과적이고 명확한 구현을 위해 부수적인 시각 자료와 도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일차적으로는 추후 전개될 여러 디자인 결과물간의 이미지 통합을 전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시적, 공간적 이미지 통합을 통해 대상지의 합의된 장소 정체성을 사용자, 또는 대중에게 혼선 없이 명확하게 구현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의미 있는 ‘장소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시에는 대상 장소에 대한 면밀한 인문적, 물리적, 자연적 현황조사를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상지의 장소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맥락에서 새롭게 변화될 장소이미지, 즉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게 될 주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구현될 장소이미지를

유연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시방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W.Mills, the Power elite, 파워엘리트, 진덕규 역, 한길사, 서울, 1991
2. Design trust fellows, High performance infrastructure guidelines, Newyork, 2005
3.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초판, 논형, 서울, 2005
4.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개정초판, 대운, 서울, 2007
5. SH공사, 가든파이버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8
6.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08
7. 서울특별시, 남산르네상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8.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중양지구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2005
9.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초판, 논형, 서울, 2006
10.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서울상징연구, 서울시, 2008
11. 박정아 외 3인, 도시 복합용도시설의 건축적 공공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0권 1호, 2008.5
12. 백승경 김주연 이승훈, 도시화에 따른 공공공간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6호, 2009.12
13. 이주호, 장소이미지, 체험가치, 그리고 재방문의도 관계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2009
14. 장선영, 현대공간의 장소상실성과 표현에 관한 고찰, 국민대 석사논문, 2006
15. 최용수, 브랜드이미지와 재료의 표현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2005.12

[논문접수 : 2011. 06. 30]
 [1차 심사 : 2011. 07. 13]
 [2차 심사 : 2011. 07. 20]
 [게재확정 : 2011. 08. 05]